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병식
초당대학교 총장

요즘 취업시장에, ‘슬픈 인문계’라는 다소 낮은 말이 나돌고 있다. 일자리 마련에 고심 해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심경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이는 최근 (주)현대자동차가 급근도 직원 채용 방침을 발표 하면서, 정시에는 이공계 출신 졸업자만을 모집하고, 인문계는 상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상시 채용’이라는 말은, 용어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에 따라 최소 인원 만 채용하겠다는 뜻이어서 인문계 졸업자들이 낙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삼성, LG, SK 등 국내의 다른 4대 기업그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인문계열 출신을 20% 정도만 채용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슬픈 인문계’ 현상의 이해와 의미

사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먹거리 기업들이 창출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슬픈 인문계’ 현상에는 현재의 우리 산업에 관한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문계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무형의 지식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공계는 하드웨어인 물질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산업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의 양은 우리 산업의 현주소, 즉 구조적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돌아 볼 때 우리의 70, 80년대는 경영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인기가 있었고, 취업도 더 잘 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로 이행되는 과도기 시기여서 산업화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소자자금을 확보하는 등 정부에 관한 일이 많이 필요했고 중요했던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나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해진 구조로 우리 산업이 이행되어 있음을 이 현상은 말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산업이 바람직하게 발전되어 왔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이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 구체적 물질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 및 가공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 깊은 곳에서는 투자 대비 고가치를 지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에는 못 미치고, 아직 많은 부분이 전통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IT강국 등을 내세우며 반론을 제기 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이 분석의 근거를 신뢰한다. 왜하면 기업이 내놓는 인력 수요에 대한 숫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부의 숫자에 비해 훨씬 정직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정량화한 구체적 이윤을 목표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해에 출범하였다. 이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예산도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새로운 정부기구도 만들었다. 선진국의 산업을 모방만 하던 기존의 경제 패턴에서, 창의적 변화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간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우리 대부분의 국부는 전통적 산업에서 나온다는 엄연한 현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국가에서는, 지향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행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창조경제를 지향은 하되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철 지난 전통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인식되어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다. 즉, 전통산업이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現實)과 창조경제의 중심인 지식융합산업 등에서 성과를 내고자하는 현 정부의 이상(理想)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황금률을 현 시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세상일에는 매사 균형을 잡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양단 사이에서 조화로운 배반 점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고려 및 조선조를 걸쳐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를 양성했던 교육기관의 명칭이 “균형을 이루다”는 ‘성군(成均)’이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만하다.

社說

극빈층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시나요

모처럼 잘 된 복지서비스 행정이 눈길을 끈다. 각 자치단체들이 하루 끼니 때우기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세대를 사전에 파악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제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신속하게 극빈층을 도와주는 긴급복지원금 신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각 구청에 긴급 복지지원금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1201건(하루 평균 52.2건)이다. 이는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2687건(하루 평균 45.5건)에 비해 하루 평균 6.7건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에서 가난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던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에 따른 여파다. 사건 당시 긴급지원제도가 활용되지 못한 것은 홍보 미흡 탓이었다. ‘등간 말이 어두운’ 우리 복지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위기가정

발급 특별법을 구상한 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비록 불상사를 미리 막지는 못했지만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빈곤층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없지 않지만 위기가정 대책반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공과금 체납, 주거 취약 세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돕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집배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 등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대처키로 했다니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소외계층을 걱정하는 이웃들의 배려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기본조건이다. 빈곤층에 대한 당국의 세련된 시책과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빈곤 세대들도 한 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용의자 한 명 잡자고 수천 명 들쭉신 경찰

경찰이 행정권을 비판한 낙서 용의자를 잡기 위해 광주지역 일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3700여 명의 인적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용의자가 기초생활수급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제보만을 믿고 광범위하게 인적 자료를 요구해 과잉수사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이 24일 각 구청에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출생한 남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주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과 총장로 등 16곳에 ‘특정정권 물러나라’는 등의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기초생활수급증 소지자라는 제보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밀한 수사 과정을 거쳐 해당 남성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또는 대상 지역을 보다 구체화 시키지도 않고 단순한 제보만을 근거로 수천 명의 인성 자료를 요구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경찰이 가장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시한 데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그릇된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셈이다.

여기에 일선 구청들도 개인 동의조차 받지 않고 버젓이 대상자 명단을 제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요구하도록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 자료 요구는 필요하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수사권 남용은 범죄나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벌 질서 운운할 수 있겠는가. 경찰은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니라면 이미지 실추와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기고



김윤식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FISU와 손발 맞춘 최고의 유니버시아드, 준비 속도낸다

직위위원회와 국제연맹의 협력이 중요하다. 양 기구가 긴밀하게 협력해 각 영역의 준비사항을 치밀하게 체크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대회가 4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FISU와의 협업 속도도 빨라졌다. 지난 2월 FISU 사무국의 점검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FISU 감독위원회가 방문, 처음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돌아갔다.

FISU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를 대리하여 광주대회 점검에 나선 감독위원들은 다수의 타 대회 사례와 경험을 가진 국제스포츠대회 전문가들이다. 직접 선수생활을 지내기도 했던 감독위원들은 친문화적인 수치의 둔 잔치로 치장한 외양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광주 전남북에 위치한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고 19개 분야의 진행상황에 대한 조직위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철저하게 참가 선수 입장에서 경기장 여건과 각 가능실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선수들의 직접적 편의를 제공하게 될 등록절차, 숙박시설, 식음료 및 의료

서비스도 놓치지 않았다. 선수단과 관공객의 손발이 될 자원봉사자 준비상황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감독위원들은 대체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조직위는 감독위원의 조언을 각 분야에 반영해 보완해나간다고 한다.

FISU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는 교육프로그램 추진상황을 논하는 개발위원회와 대학스포츠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의 장인 FISU 포럼에도 이어졌다. 특히, FISU포럼은 광주와 FISU,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협업의 첫 산물로써 더욱 빛을 발했다. FISU와 대한대스포츠위원회는 FISU가 자랑하는 고품격 스포츠 학술행사를 통해 전세계 스포츠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모아 스포츠도시 광주의 영향력을 공인시켜 주었다.

FISU포럼은 FISU와 함께 현장운영계획(VOP)을 실현에 적용시킨 출발점이기도 하다. 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4년 전부터 마스터플랜, 액션플랜 수립을 통해 공을 들여온 현장운영계획은 이번 71개국 300여명의 포럼 참가자를 대상으로 등록인증, 안전, 인력, 숙박, 수송 등 각 분

야별로 적용하여 현장 훈련과 점검이 이루어졌다.

4월 2일부터 3일간 예정된 FISU 세미나는 선수촌, 식음료, 경기운영, 시설, 인력, 수송, 안전, 자원봉사 등 13개 분야 전문가들의 실무 지식을 전수받는 기회를 마련한다. 세미나 강연자들 중에는 런던올림픽을 포함한 11번의 올림픽과 2번의 월드컵 등에 기획, 경기운영, 시설 구축에 직접 참여했던 국제스포츠대회 전문가가 광주유니버시아드 성공개회를 위해 광주대회 실무자들 앞에 선다. 광주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수정을 거듭하며 써내려온 모든 대회 운영 시나리오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FISU를 비롯한 UNOSDP, 대한대스포츠위원회, 세계스포츠연맹,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함께 2015년 7월을 향해 달리고 있다. 씁없이 내달려야 할 이 여정은 국제기구들과 유기적 움직임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유니버시아드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칼럼



서정아
SM美성형외과 원장·가정의학과

비만은 치료해야 할 질병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으로 정의한다.

비만 진단 시에는 BMI지수로 측정한다. BMI지수는 Body Mass Index의 약자로 체질량 지수를 뜻한다. 체질량지수는 단순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비만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나타내게 된다. 신장과 몸무게의 비율로 따지게 되며 계산도 간단하다. 키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미터 단위의 키로그램을 두 번 나눠준 값으로, 예를 들어 키가 175cm고 체중이 80kg일 경우에 80을 1.75로 두 번 나눠줄 경우 25가 넘게 됨으로써 비만에 해당되는 것이다. 체지방지수가 25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을 질병이 아닌 미용 목적의 치료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에 이미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규정하였고, 미국의사협회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공식 인정 발표했다.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인 미국에서는 한해 최대 36만명이 비만으로 숨지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을 유발시키는 비만을

더 이상 체질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생활에서 비롯되는 질병으로 공식 인정하게 된 것이다.

사실 비만은 체지방이 과다해서 그 체지방 자체가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여러 가지 암과 정형외과 질환, 불임까지 유발하게 된다. 최근에 미국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인지능력이나 기억력까지 떨어진다든 연구 결과를 밝혀내기도 했다. 비만은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방치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이다.

이중 신체 활동량 부족, 지나친 음주, 다이어트를 위한 무리한 절식과 폭식, 불규칙한 식사, 흡연 등이 원인으로 생기는 뱃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감람하고 싶어하는 신체부위지만 가장 빠기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 대다수가 뱃살 감량 계획을 작성삼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비만 중에서도 특히 복부비만은 각종 합병증을 불러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빨리 감람하는 게 좋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부비만의

기준’이라는 제목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바 있었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남성의 경우 90cm(36인치), 여성의 경우 85cm(34인치)를 복부비만 기준으로 본다. 뱃살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지만 지방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문제는 지방이 혼자 조용히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세포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여자는 분해가 잘 안 되는 피하지방이, 남자는 분해가 잘되는 내장지방이 주로 쌓여 복부비만이 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만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살을 빼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가 포기하기보다는 체중의 5~10% 정도만이라도 감람시켜 이렇게 감소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굶는 다이어트는 피해야 할 다이어트 중 첫 번째로 손꼽히는 위험한 방법이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거나 시간적으로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할 경우는 전문의를 찾아 몸매성형을 고려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無 等 鼓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변진섭의 ‘희망 사항’은 그렇게 시작된다.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는 것은 몸매가 예쁘다는 이야기다. 잘룩한 하라, 둥근 엉덩이, 끈게 뻗은 긴 다리를 갖지 않고서야 어찌 청바지를 입을 엄두를 내겠나.

노성심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재미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똥똥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그런 여자가 현실 속에 얼마나 있겠는가하는 하여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요즘 무명 가수 ‘브로’(Bro)가 부른 ‘그런 남자’가 화제다. 이 노래는 발표된 지 일주일도 못 된 어제, 국내 한 음원사이트에서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가사가 재미있어 입소문을 탔다.

‘말하지 않아도 네 맘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남자’ ‘한 번 눈길만 주고 갔는데 말없이 원하던 선물을 안겨다 주는 남자’ ‘키가 180은 되면서 연봉 6천인 남자’. 이렇게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면서 사정없이 반전(反轉)을 안긴다. 더구나 ‘왕자님을 원하신다면 사무디로 가세요’라고 조롱까지 한다.

이에 맞서(?) 걸그룹 ‘벨로체’(Veloce)가 ‘그런 여자’란 노래를 내놓았다. 동일한 멜로디에 가사만 변형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네 맘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여자’ ‘함께 맛있는 밥을 먹어도 가끔 말없이 계산하는 그런 여자’ ‘기념일을 지나쳐 버려도 환하게 웃으며 모든 걸 이해해 주는 여자’ ‘성형하진 않아 반 남자들이 어떤 여자’ 불꽃놀이 낚치는 여자’. 한데 그런 여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겠느냐는 것이다. ‘김태희를 원하신다면 우크라이나로 가세요’라고 덧붙이면서, 대중가요에는 시대와 함께 사회나 풍속과 더불어 변해가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뭘까. 여자가 바라는 남자, 남자가 바라는 여자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으며, 있다고 해도 당시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소 양에 차지 않더라도 ‘있을 때 잘 하는’ 수밖에.

/이희재 논설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